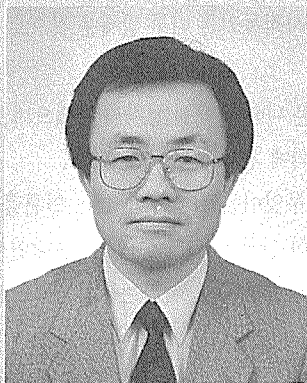


걸프사태후 언론에 비친 석유업계



梁承賢
〈서울신문 경제부기자〉

앞으로 발표하게 될 내용은 지난해 8월 걸프사태이후 본인이 보고 느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혹시 함량미달의 발언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언론 전체의 수준은 결코 아니며 출입기자 모두의 생각 또한 아니다.

사실 무엇을 쓰고 어떻게 얘기를 꾸려나갈지를 결정하는데 무척 힘들었다.

물론 이것도 아직 걸음마 수준을 채 벗어나지 못한 본인의 능력부족에서 기인한바크지만, 이미 기라성같은 선배동료 기자들이—이 자리에도 지난해 발표자로 나섰던 분이 참석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4차례에 걸쳐 발표자로 나서 할말을 다해버린데도 그 원인이었다. 도대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인이 할 말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저는 다음에 맡게 될 발표자를 위해 조금은 남겨두려 애쓰는(?) 등 주제넘은 배려까지 하다보니 더욱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본론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 걸프사태 발발이후 석유업계가 한 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事態가 美國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때까지 7개월 동안 精油會社들은 많은 일을 해왔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 묶여 마치 動資部가 모든 일을 다한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서로 공동노력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정유회사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동분서주 해온 일들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걸프사태가 터지자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물량부족 사태로 인한 수급불안이었다.

실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世界石油市場에

는 하루아침에 4百 80萬배럴이라는 엄청난 량의 원유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들 양국으로부터 사들여오던 하루 10萬 5千배럴의 원유공급이 일시에 붕 떠버렸다.

精油 5社는 곧바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부족 물량을 다른 산유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했다.

이 결과 사우디産 원유를 雙龍 6萬배럴, 油公 5萬 5千배럴, 極東 2萬배럴, 湖南 9萬배럴 등 모두 16萬 5千배럴을 추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만 해도 수급불안을 우려, 등유사제기에 나섰던 일반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으며, 아마 모르고 있던 해도 「精油會社들이 모처럼 큰 일 한번 하는구나」 했을성 싶다.

또 하나는 정유회사들의 기민성이다. 물론 정당의 최대목표가 권력추구이듯 이윤추구가 생명인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언론이 좇아가지 못할 만큼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쟁이 터지자 船積港을 사우디 라스타누라港에서 잿다나 안부港으로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바꾼 것이 그렇다. 선적일자를 앞당겨 유조선마다 서둘러 원유를 가득 채우고서 유유히 걸프灣에서 빠져나온 행동도 돋보였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 北方外交의 열기에 편승, 중개상을 통해 일부 정유사가 蘇聯側과 원유도입교섭을 벌인 것도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상당한 점수를 얻었음은—나중엔 본인에게는 많은 점수를 잃었지만—물론이다.

유공의 이집트 北자파라나광구 개발과 京仁에너지의 에코도르B-13, B-12광구 개발 성공도 해외유전 개발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쾌거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정유회사들은 걸프사태 후 과거의 그릇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고 이를 심분 활용하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런데 어렵게 쌓아올린 많은 노력들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음도 범했다.—「어리석음이라니 그제 무슨 역장 무너지는 소리냐」는 精油會社들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뒷부분에서 논의할까 한다.

그 첫번째는 국제원유값이 가장 비쌀 때인 지난해 11월 무더기로 원유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결과를 놓고보면 이때 도입물량은 3千 7百 61萬배럴이었으며 導入單價는 배럴당 31.43달러로 最高 수준이다. 때문에 정유사가 產油國에 값아야 할 원유도입대금 또한 사상 최고치로 무려 11억 8천 2백 8만 2천 3백달러에 이르렀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나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

「정유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비축물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었지만, 국내유가의 국내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갑자기 도입물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고관리가 아닐것이다.

아마 석유사업기금의 차액 보상을 확대하는 방편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재고관리가 허술할 것으로 판단, 국내기름값 인상시 2중의 이득을 노린 행동임에 틀림없다. 에너지 확보와 공급이라는 정유업계의 공통적 성격에 비추어 사적동기를 너무 앞세운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시 언론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으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악의에 찬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精油社 무분별한 상투잡이 원유구매」 「연내인상설 자극 정유사 원유사제기 경쟁」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됐다.

이 단한건의 보도로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되버린 셈이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지면에 등장한 「기업의 수지의식 한 일부 정유사 가동단축」 「정유사 공단에 경유·병커 C油 판매기피」 등도 정유사의 이미지에 조그마한 흠집

이나내는 면도칼이 아닌 청풍도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 動資部 위기관리 정책의 허와실

이 문제는 간단히 두가지 문제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면 기자실과는 뿔레야 뿔수 없는 흠아비와 과부 관계인 공보실이 요즘 「걸프전 홍보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상부로부터 받고 울상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정부가 이번 걸프사태 동안 물량부족이라는 미망에 너무 사로잡혀 일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1·2次 오일쇼크때 산유국에 원유를 구걸하다시피 했던 동자부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감이 없지않다. 11月の 精油會社間 도입경쟁도 정부의 성급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온다.

특히 걸프전 발발직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 억제대책」을 보면 성급함의 극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자부는 이 대책에서 걸프전이 발발하면 56%에 해당하는 원유공급이 끊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전쟁이 1개월이상 지속되면 제한송전조치는 물론 심지어 등유배급제까지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사가 볼때 지나친 위기의식의 강조였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석유위기의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에너지 주무부서가 그동안 뭘 했길래 꼭 이 정도의 사태까지 가야 하는가하는 질문도 된다.

그렇게 되지않아 무척 다행스럽지만 성급함과 이에 따른 위기의식의 과치는 충분히 이해한다해도 동자부가 범한 큰 오류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유가관리의 잘못이다.

전쟁의 전개양상이 하도 특이해 아무도 향후 국제유가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상시키는 적절하지 못했던것 같다. 물론 동자부가 단독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다.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였다.

허나 수차에 걸친 政府의 「내년 인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11월에 연내 인상됐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정유사 도입경쟁, 월동유류 사재기 현상등 우리사회에는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랐다.

○ 言論의 평가와 보도의 문제점

걸프사태동안 언론에 비친 정유업계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은것 같다.

「갈치가 갈치꼬리를 무는」—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형국이라고나 할까.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1月の 도입경쟁과 지난 2월 말의 무더기 통관사태에서 보인 제로섬 게임이다.

雙龍精油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추진하고 있는 「한·사우디 정유회사」 설립문제를 둘러싼 정유회사간의 갈등에서도 이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 미묘한 문제라 누구 편도 들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유업에 대한 오래된 넓고 깊은 오해의 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유회사가 이렇게 보이게 된 이유는 뭘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유회사들 자신이며 그들이 갖고있는 20여년에 걸친 이력서가 그같은 시각을 갖게했다.

하지만 언론도 공범이다. 언론이 지향하는 최대 목표는 춘추필법이고 공정보도이지만 오늘 언론이 정유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사시에 가깝다.

앞서 지적한 걸프사태후 정유회사들의 부정적인 면도 정유회사관계자들의 속을 들여다 볼수 없어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아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다가 뭐 뜯는 소리」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이게 불행하게도 언론의 숙명이며 이미 정해진 골레이다. 언론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기도 하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완벽한 공정보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는 취재해서 이를 글로

표현하는 기자도 결국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결프사태가 터진 다음날 모 조간신문 기사가 쓴 「국내 LPG비상 배급제 전망」이라는 오보로 부터—일부 조건과 석간이 확인도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았지만—시작된 각종 추측과 작문의 기사가 이를 잘 반증해준다.

본인이 기자래서가 아니라 이같은 오류가 꼭 오늘날만의 문제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 유명한 史記를 쓴 사마천과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되살아난다면 조조를 비롯 많은 등장 인물들이 「이런 병신같은…」 운운하며 사마천을 죽이려 덤빌게 거의 틀림없다.

억울하고 그래서 한도 많을 정유회사들은 이 점에서 위안을 찾았으면 싶다.

○ 앞으로의 석유위기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을 수없이 되풀이 한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모여 날과 씨처럼 엮어내는 역사는 결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소박한 믿음이다.

역사는 그해 헤겔의 정·반·합의 論理이건 아니면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논리이건 간에 꾸준히 발전한다고 보며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의 석유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겠으나 이번 결프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중동국가내지 결프灣 연안 국가들로부터 원유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이다.

일부 국가들로부터 물량공급이 끊기고 한때 값이 천정모르게 정충될 가능성은 국제 원유시장의 특성상 언제나 상존해 있으나, 1·2次 오일쇼크 때처럼 물량이 없어 야단법석을 떠는 시대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는 선의로 발전한다는 나의 순진한 믿음이며, 둘째 세계경제가 이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공존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세째 과거와 달리 이제는 소비국들이 국제석유시장을 움직일만한 원유비축물량등 각종 대응방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론자의 선부른 판단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예측과 달리 하향안정세를 보인 국제유가등 이번 결프사태의 전개형태는 그럴 가능성을 짚게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프사태 이후 中東 산유국들의 움직임과 패전으로 인한 이라크의 몰락은 현대가 石油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칠수 있는 시대이긴 하나 石油만을 가지고 혼자사는 현대는 아니며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을 근거로 「정부가 2次 오일쇼크의 악몽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친 위기의식의 고취였다」 등의 비판의 메시지를 던것에 대해서는 이 항목을 빌어 사과하며 이런 생각을 하는 기자도 있었구나 하고 참고로 여기길 바란다.

○ 内部의 적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기이다.

부족한 비축·저유시설, 비좁은 도로와 항만, 탈황 및 분해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등이 바로 위기를 부르는 내부의 적이다. 모두가 벌써부터 뼈저덕 거릴만큼 한계상황에 달해있다.

石油의 하루 소비량은 90年 96萬배럴에서 올해 1백 3만 배럴로 계속 늘고 있는데 석유공급을 위한 각 부대시설은 96만배럴 수준이다.

아직은 탱크롤리가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경인구간을 비롯 전국의 모든 도로가 거의 포화상태이다. 항만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안개가 끼고 해상조건이 좋지 않으면 인천항에는 3

~4일씩 배를 댈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저유시설이나 비축시설, 송유관등을 쉽게 늘리거나 설치할 수도 없다.

위험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부동산 열병이 온 국토를 들쭉서놓아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政府는 오는 96년까지 비축시설을 현재의 배로 늘린 다지만 기자가 보기엔 쉬울것 같지않다. 京仁 송유관 건설에서 고양땅에 지을려고 하는 저유소설치 부지마련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들린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가 곧 실시되면 정부나 정유사의 이러한 사업추진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아쉽고 不幸하게 서로 모르는 사이에 실기를 해버렸다.

그런데 89년 동해시에서 처음 발생한 내부로부터의 도전은 거의 위험수위에 다다른 느낌이다.

당시 東海市는 폭설로 유조선이 들어오지 못해 겨울철 때 아닌 석유파동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정유회사들로 하여금 저유시설을 건설하려 했으나 동해시 주민들이 이를 거절해 지금도 그 상태이다.

내부의 위기를 무엇보다 뒷받침하는 근거는 걸포사태 동안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 비축하고 있던 등유와

경유도 외부로부터의 적이 아닌 사재기라는 내부로부터의 도전 때문이었다.

動資部の 요청으로 켐바고를 걸어 보도되진 않았으나 인천항의 안개때문에 LPG수송선이 3일 동안 못들어와 수도권외의 재고가 두차례에 걸쳐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담은 금물이라 하지만 앞으로 정부 비축유의 방출은 대부분내부의 도전에서 비롯될게 거의 틀림없다.

분명히 앞으로의 위기는 물량은 지천으로 쌓여 있는데 눈때문에 운반하지 못해 생기고 원유나 가스를 실은 선박이 들어 올수 없어 일어나게 될것이다.

이 총대를 누가 댈 것인가.

산업의 혈액인 石油의 확보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정유회사와 動資部 外에 누가 있겠는가.

시간과 맘이 많이 들겠지만 실타래를 갖다놓고 한올 한올 풀어나가듯 처리할수 밖에 없다.

이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정유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동자부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될것이다.

어찌보면 이문제까지도 공범인 언론도 이 내부로부터의 위기극복 만큼은 애정어린 질책과 우정어린 도움을 약속한다. ♣

직장인이 버려야할 말 10選

- 열심히 한다고 봉급 더 주나
- 우리회사가 망하기야 하겠나
-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라
- 대총대총해 · 시키는 대로 해

大韓투자신탁이 12일 기업문화교범이란 책자를 통해 직장인들이 버려야 할말 10가지를 뽑아놓은 것이 무척 흥미롭다.

이책이 적시해놓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기업에서도 이를 교훈으로 삼음직하다.

- ① 열심히 한다고 봉급 더 주나 (무사안일주의)
- ② 대총대총해! (적당주의)
- ③ 他부서나 他社는 어떻게 하지? (소신부족)
- ④ 우리회사가 망하기야 하겠나 (주인 의식부족)
- 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권위주의)
- ⑥ 우리회사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탈이야! (냉소주의)
- ⑦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라 (기회주의)
- ⑧ 이걸 우리부서일이 아니야 (책임회피)
- ⑨ 규정에 그렇게 안돼 있는데 (형식주의)
- ⑩ 우리회사는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폐배주의)